

광주시-전남도 동북댐 정비사업 10년째 공방

애꿎은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 못해

도, 예산지원 요청에 광주시 "임의규정"

광주의 상수원인 동북댐 주변 정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애꿎은 주민 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관련법과 시행령 등 을 근거로 동북댐 인근 지역 주민들 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에 수차례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여지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댐은 지난 1985년 준공돼 광 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 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동북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 추진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동북댐 인근 지역민들을 위한 생산기반조성·복지문화시설·공공시 설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관련 공문만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내는가 하면 광주시측과 수차례 협 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북댐 건설로 화순군 이서·북·동 북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 인 만큼 이 일대 189km에 거주하는 지 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비 사 업을 펼치겠다는 취지지만 임의 규정 인데다, 광주시도 열악한 재정 형편 을 들어 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북댐 인근 지역민들 만 수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 등으 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 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관련 법률 을 근거로 광주의 또 다른 상수원인 주암댐(순천시 주암면)에 2003년부

터 2010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한 만 큼 광주시도 동북댐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 와 인근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편의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사업비 지 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과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 고 있다"며 "같은 행정기관의 입장 이라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측은 "사업비 지원은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삽입된 조 항"이라며 "댐 건설 당시 부채를 현 재 상환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은 당 장 어려운 실정이며 정비사업은 아니 지만 2002년부터 '동북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55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 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희호·권양숙 여사 천리포수목원 나들이 리포수목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 통 령부인 권양숙 여사가 13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 리포수목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달력만 봤어도 해수욕장 3일 개장 생각했을 텐데”

박준영 지사 피서철 앞두고 세심치 못한 행정 질타

박준영 전남지사가 본격 피서철 을 앞두고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대 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지사는 13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지난 10일 도내 처음으로 완도 명사십리 와 신안 우전해수욕장이 개장했다” 고 운을 뗀 뒤 “4월~6일이 연휴라

는 점을 고려했다면 3일 개장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 나”고 지적했다. “달력만 들여다보 더라도 충분히 생각했을 일인데도,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인터넷 등에 전남 해수 욕장을 홍보하면서 단순한 해변 전

경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텐 트와 그늘막 등 저렴한 편의시설을 갖춘 해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해 수욕장을 찾는 대학생 등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일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 지사는 “지난 주말부터 장마 가 시작된다고 예보됐지만 정작 날 짜는 좋았다”면서 “오늘도 누가 장 마칠지라고 하겠느냐, 이럴 바엔 장기에보름 하지 말든지~”라고 했 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장 마시작을 알리는 예보가 나오는 바 람에 관광객이 줄고 결과적으로 특 수유장을 찾는 대학생 등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일 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박주선 “한미FTA 비용추계 또 날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 선(민주당·광주 동구) 의원은 13 일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용추계서 를 일주일 만에 다시 날림으로 제 출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서에는 한미 FTA로 인해 10년간 연평균 최대 6조 3000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3일차 추계서에선 2006년 기준 950원으로 가정된 기준환율을 현재 환율로 변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2007년 전 망치로 사용하는 등 여전히 손익분석이 미흡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장병완 “프로축구연맹 승부 조작 은폐”

민주당 장병완(남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스포츠포토가 프로축구 선 수들의 불법 배팅 사실을 파악하 는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확인하 고 경기단체 사무총장들이 참석 하는 자문위원회에서 의혹을 통 보했으나 프로축구연맹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이어 “프로축구연맹은 검찰에서 승부조 작 사건을 수사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사실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 2명의 젊은 선수가 자살하고 축구팬들 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뒤 은폐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동철 SOFA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군 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과 장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민주당·광주 광산 갑) 의원이 12일 한·미 주 단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

표 발의했다. 그는 결의안에서 ▲미군 기지 의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 ▲주한미군 주둔지 반입·반출 독성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정기적 제공 ▲미군 환경 범 죄에 대한 처벌 의무조항을 명시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발의 안에는 김 의원 외에 민주 당 의원 17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은방 광주시 명예시민 조례 개정

이은방(민·북구 6)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명예시장 및 명예 시민에게 의전상의 예우와 공공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만 해주었 던 것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숙박 및 이동 편의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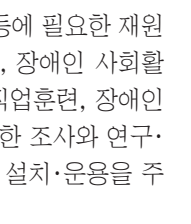


시의회,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상정

문 상 필 (민·북구 3· 사진 왼쪽)· 정병문 (민· 비례)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장애 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3일 환경복지위원 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해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 사회활 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입찰 업체들 심의위원 치열한 접촉 시도” 진상 밝혀라

광주시 총인 시설 관련 진선거 시의원 촉구

광주시 총인(總楯) 시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광주 시 간부가 밝힌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업체들의 치열한 접촉설”에 대해 광주시의원이 진상규명을 촉구했 다.

진선거(민·북구 1) 광주시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열 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간부가 ‘심 의위원들에 대한 업체들의 치열한 접 촉 시도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라며

“이 말에 대해 시는 입장을 밝혀달 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 같은 발 언은 심사위원 해촉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총인시설 논란과 관련 홍인화 시 의원에 최근 본회의에서 임기가 보 장돼 있고 자진사퇴 의사가 밝히지 도 않은 심의위원까지 해촉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한 건설방재국장은 “일부 심의위원들이 방대한 설계검 토와 업체들의 접촉시도도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 있어 분위기 쇠신 차원에서 해촉했으며 일부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 했다.

총인시설과 관련한 해당 국장의 접 촉시도 발언을 놓고 어떤 업체가 어 느 공무원에게 어떤 형식으로 접촉을 시도했는지 시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GREEN QUEEN 그린퀸은 (주)동아이텍이 개발한 새로운 타입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로 환경 제인 과 “저탄소·저에너지”를 함께 합니다.

우리 집 문지방을 넘은 손님은 누구든 밥을 먹여 보내는 효제 성격, 덕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상을 차리는 제게 그린퀸은 감동이었어요.

싱크대 일체형이니까, 쓰면 쓸수록 편리하고 자연풍이라 전기도 적게 들고 부산물은 텃밭 거름으로도 쓰는 그린퀸.

여자의 생활을 바꿔주고, 환경도 살리는 스마트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그린퀸. **친환경 살림의 여왕, 효제는 그린퀸이죠.**

효제는 **그린퀸이죠**

이 효제
서울시환경운동본부, 한대미디어

GREEN QUEEN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 처리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그린퀸” 대리점 모집안내

- 주부를 가사노동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문제, 설거지 후 터치 한 번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열풍이 아닌 자연풍 건조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악취 걱정, 전기세 걱정 확실하게 없애 드립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80~90%까지 감량 건조 시켜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양질의 건조된 부산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퇴비나 연료 등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수익 사업 분야]
소비자판매(일반판매/렌탈판매)
신축 건축물 대상 단체 납품
기업체 대상 특판 영업
아파트 단지별 공동 구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단체 납품
지자체 조례를 활용한 단체 납품

- TV, 라디오광고 : 7월부터 시행 예정
- 모집 지역 : 전국 시, 군, 구 각 1개 대리점
- 모집 조건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철저한 분
- 2011년 하반기 업소용제품 출시 예정
- 개설 상담 : 1666-9001

인터넷 검색창에 “동아이텍” 또는 “그린퀸”을 쳐 보세요.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송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